

태평양동맹 현황 및 활용전략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중남미 경제블록과 태평양동맹 출범/3

II. 중남미 진출 플랫폼 활용 전략/15

III. 진출유망분야/27

IV. 시사점/32

요 약

I. 중남미 경제블록과 태평양동맹 출범

-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역내 국가 간의 경제블록 형성 및 공동 시장 구축에 적극적이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나 이상의 공동 경제블록에 가입되어 있으며 메르코수르(Mercosur), CAN, ALADI 등의 경제블록이 대표적임.
- 그러나 다수의 경제블록 중 국제경제에서 이렇다 할 영향력을 보유한 블록은 메르코수르 하나이며 이마저도 경제적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
- 반면 중남미 태평양연합은 중남미 경제리더로 부상하는 신흥국의 주도로 구성된 경제블록이라는 점과 FTA, 수출산업육성,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의 정책이 중심이 된 경제블록이라는 점이 특징임.
- 또한 회원국 간의 교류확대와 역내 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거 경제블록과 다르게 세계 시장 및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을 하는 공동체라는 점에 차별화됨.

II. 태평양동맹 플랫폼 활용 전략

- 태평양동맹의 전체 인구는 약 2억, 1인당 구매력은 13,000 달러에 달하며 2017년까지 18,000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우리나라의 대 태평양동맹 교역은 연간 2012년 기준 238억 달러 수준이며 메르코수르와의 교역대비 약 20% 많은 금액
- 우리 나라의 중남미 국가별 교역량은 브라질이 중남미 1위이나 그룹별 교역에서는 총액 기준 태평양동맹이 최대 규모임.
- 중남미는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자원, 건설플랜트, IT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발주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적인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임.

- 그 밖에 태평양동맹시장의 중남미 시장과 북미, EU 시장 공략 거점화, 보유 자원을 활용한 산업협력, 국별 산업특성을 이용한 산업별 진출 플랫폼 구축 등에서 태평양동맹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III. 진출 유망분야

- 중남미 최대 유망진출분야는 단연 건설플랜트 시장으로 과거 전력 분야에 집중되었던 프로젝트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지하철 등 다분야로 확대되는 추세
- 또한 의료분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프라 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디지털병원, 의료장비 등의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역시 태평양연합 시장 진출 유망 분야 중 하나로 섬유, 식품 등 기존 산업 활용과 물류거점을 활용한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 분야도 고려해볼만 함.
- 마지막으로 대외교역 증가에 따른 세관, 항만관리 현대화,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관리시스템 도입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IT 인프라 분야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IV. 시사점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관계는 상품교역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양자 간의 교류 분야 다양화는 미흡했음.
- 선진국 및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의 중남미 현지진출 및 현지화는 매우 뒤처지는 상황이며 최근 대 중남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도 격차가 큰 상황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파트너링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다분야 협력 및 동반성장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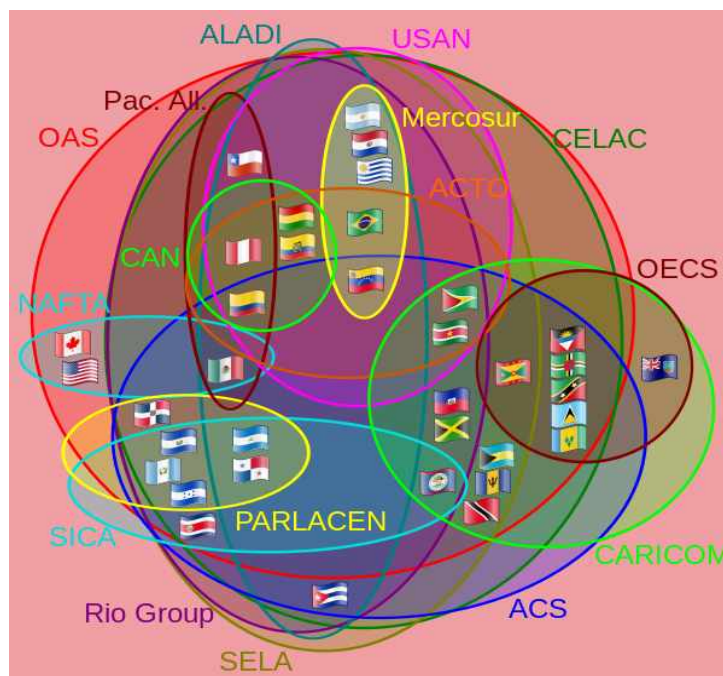
I. 중남미 경제블록과 태평양동맹 출범

1. 중남미 경제블록 및 블록별 현황

□ 중남미 경제블록 현황 및 문제점

-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역내 국가 간의 경제블록 형성 및 공동시장 구축에 적극적이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나 이상의 공동 경제블록에 가입되어 있음.

<중남미 경제블록 현황 및 구성 국가 현황>



자료원: Wikipedia

-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블록은 단연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주축이 된 메르코수르(Mercosur)로 1991년 출범
- 메르코수르 이외에 안데안공동체(CAN)를 비롯해 중미경제통합을 목표로 한 중미통합체제(SICA),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등 다수의 경제블록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

- 그러나 다수의 경제블록 중 국제경제에서 이렇다 할 영향력을 보유한 블록은 메르코수르 하나이며 이마저도 경제적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
- 또한 국가별 정치적 이견 및 분쟁 발생과 같은 일시적 대립으로 인한 잦은 탈퇴 및 재가입,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 경제블록 창설 경쟁 등도 효과적인 중남미 경제블록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중남미 주요 경제블록별 현황

CAN	ALADI	MERCOSUR	CARICOM	SICA
				

- 남미 대표적 경제블록은 메르코수르(Mercosur), 미주통합기구(ALADI), 안데스 공동체(CAN) 등이며 중미카리브 지역의 경우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중미통합체제(SICA)등이 대표적임.
- 남미지역 경제블록 중 가장 오래된 조직은 CAN으로 1969년 형성되었으며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4개국이 정회원국임.

<CAN 회원국 현황 및 경제규모>

(단위: 미 달러)

회원국	가입연도	GDP(2012)	비고
콜롬비아	1969	366십억	
페루	1969	199십억	
에콰도르	1969	80십억	
볼리비아	1969	27십억	
베네수엘라	1973~2006	382십억	2006년 CAN 탈퇴/MERCOSUR 가입
칠레	1969~1976	268십억	피노체트 정권 당시 탈퇴
전체 경제규모		672십억	칠레/베네수엘라 제외

자료원: IMF, CAN

- 현재 대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5개국이 정회원국이며 볼리비아가 정회원국 가입 심사를 거치고 있음.
- MERCOSUR는 GDP 및 시장 규모 기준 중남미 최대 경제블록이며 브라질이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

<메르코수르 회원국 현황 및 경제규모>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GDP(십억달러)					
2012	475	2,396	26	49	382
2013	499	2,457	31	52	346
1인당 GDP(달러)					
2012	11,576	12,079	3,903	14,614	12,956
2013	12,019	12,291	4,542	15,254	11,527
1당 구매력(달러)					
2012	18,112	11,875	6,136	15,911	13,616
2013	18,709	12,340	6,788	16,728	13,634

자료원: IMF

- 중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는 ALADI로 1980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13개국이 정회원국으로 등록되었음

<ALADI 회원국 현황 및 경제규모>

국가	가입시기	GDP (십억달러)	1인당 GDP (달러)	1인당 구매력 (달러)
 아르헨티나	창설국	475	11,576	18,112
 볼리비아	창설국	27	2,532	5,099
 브라질	창설국	2,396	12,079	11,875
 칠레	창설국	268	15,410	18,419
 콜롬비아	창설국	366	7,854	10,792
 쿠바	1999	N/A		
 에콰도르	창설국	81	5,311	10,056
 멕시코	창설국	1,177	10,247	15,311
 파라과이	창설국	26	3,903	6,136

	파나마	2011	36	9,919	15,616
	페루	창설국	199	6,530	10,719
	우루과이	창설국	49	16,728	15,911
	베네수엘라	창설국	382	12,956	13,616
Total 및 평균			5,483	9,561	12,639

자료원: IMF

- ALADI의 창설목표는 중남미 공동시장 형성이며 그 수단으로 회원국별 교역 시 최혜국 대우, 회원국 간 자유무역/시장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
- 그 밖에 중미카리브 지역 경제블록은 CARICOM과 SICA로 대표되며 각각 CARICOM은 1973년, SICA는 1991년 창설됨.

2. 태평양동맹 (Alianza del Pacifico)의 출범

□ 태평양동맹의 구성

- 2011년 4월, 태평양동맹의 4개 창설국인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는 4개국 시장 통합에 합의
-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만인 2012년 6월, 태평양동맹을 출범하고 같은 해 11월 스페인 카디스(Cádiz)에서 태평양동맹 발족 공식 선언
- 이와 함께 태평양동맹 4개국은 공식 출범 선언 이후 지속적인 회원국 유치 및 준 회원국 유치활동을 통해 미주, 아시아, 유럽 등에서 20개국의 준 회원국 확보하였으며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정회원 승인 절차를 밟고 있음.

<태평양동맹 4개 정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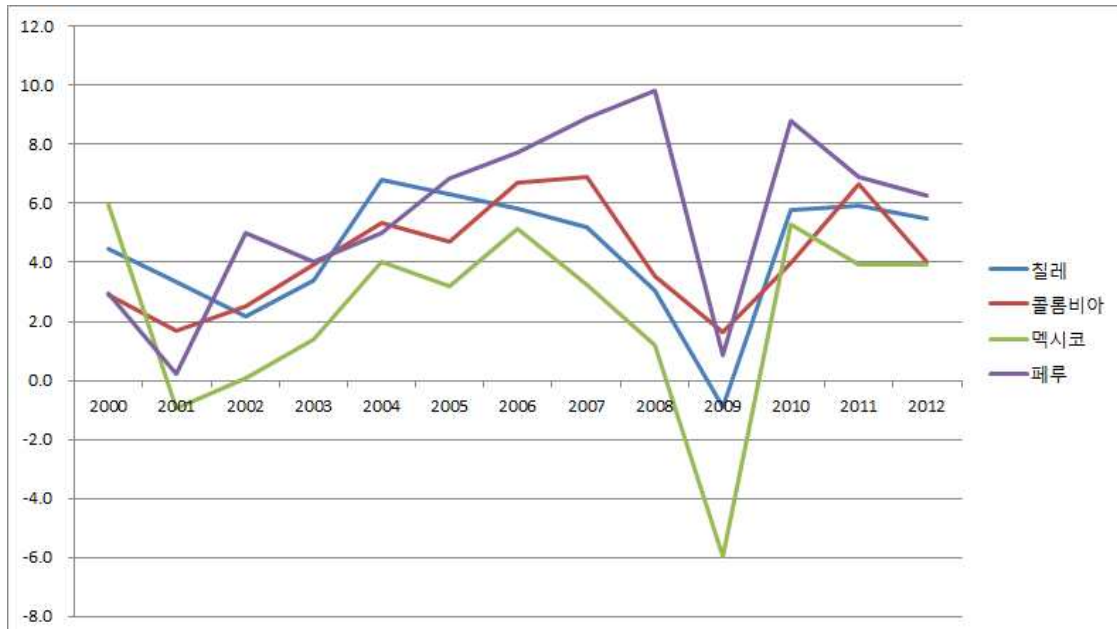
자료원: Alianza del Pacifico (주: 남색 표시는 정회원국, 주황색은 옵저버 국가)

□ 중남미 신흥국이 선도하는 차세대 경제블록

- 중남미 태평양연합 출범은 여러 면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나 여타 경제블록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중남미 경제리더로 부상하는 신흥국의 주도로 구성된 경제블록이라는 점임.
- 또한 회원국 간의 교류확대와 역내 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거 경제블록과 다르게 세계 시장 및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을 하는 공동체라는 점에 차별화됨.
- 실제로 멕시코를 제외한 3개 회원국은 2000년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대표적 국가로 2000~2012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

<2000~2012년 태평양동맹 4개국 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자료원: IMF

- 멕시코 역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춤하기는 했으나 2010년 5.3% 성장에 이어 2011년과 2012년 약 4% 성장세를 유지 중임.
-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경제대국에 비해 작은 내수 시장과 국내 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회원국들이 새로운 경제블록을 형성한 원인 중 하나임.
- 실제로 태평양동맹 4개국의 국별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8%~31% 수준이며 수출시장 확대가 국가 성장 잠재력 강화에 필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태평양동맹 4개국 연도별 GDP 및 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

콜롬비아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GDP (십억달러)	244.3	233.9	287	336.4	369.6	382.1
상품수출액 (백만달러)	37,096	32,556	39,511	56,681	59,996	57,742
GDP 대비 상품수출비중	15.2	13.9	16.2	16.8	24.6	15.1

칠레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GDP (십억달러)	179.6	172.3	217.6	251.2	268.3	281.4
상품수출액 (백만달러)	64,511	55,463	71,109	81,455	78,277	77,887
GDP 대비 상품수출비중	35.9	32.2	32.7	32.4	29.2	27.7
페루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GDP (십억달러)	126.9	127	153.8	176.6	199.4	211.1
상품수출액 (백만달러)	31,018	26,962	35,565	46,269	45,639	44,664
GDP 대비 상품수출비중	24.4	21.2	23.1	26.2	22.9	21.2
멕시코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GDP (십억달러)	1,093.80	882.9	1,034.20	1,158.40	1,177.20	1,320.20
상품수출액 (백만달러)	291,886	229,975	298,860	349,946	371,378	387,357
GDP 대비 상품수출비중	26.7	26.0	28.9	30.2	31.5	29.3

자료원: EIU

- 반면, 브라질의 경우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태평양 연합국가 대비 낮은 편이며 다른 메르코수르 국가들 역시 수출비중은 20% 미만임.
- 그 밖에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산업 개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국가 인프라 현대화 등의 사업 추진은 이들 회원국이 경제 및 산업개발을 위해 단행한 정책의 공통점임.
- 이러한 경제 역동성과 경제 구조적 공통점은 중남미 신흥국가의 단합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기존 중남미 경제블록과의 차별화된 신 경제블록 형성으로 이어짐.

□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경제블록

- 과거 중남미 경제블록의 키워드는 “자국산업보호”, “역내 산업 육성”, “수입제한”, “비회원국 고관세 부과” 등이며 전반적으로 폐쇄정책이 경제운용의 중심이었음.
- 이러한 폐쇄정책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경제대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도한 정책이었으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 특징으로 인식됨.
- 이러한 폐쇄정책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으며 2011년 메르코수르는 역외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35%까지 인상, 외국계 진출 기업에 대한 로컬 콘텐츠 활용을 의무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바 있음.
- 이와 반대로 태평양동맹 국가는 시장개방, 외국인투자자유화, FTA 등이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이러한 개방정책이 자국 산업의 세계화와 외국인 투자 확대의 핵심이라고 인식
- 또한 대외교역, 외국인 투자 분야 등에서 미국, EU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완화하고 신 시장 개척과 투자유치채널 다양화 등이 공동 목표임.

<2012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태평양동맹 4개국 지역별 수출 비중 현황>

(단위: %)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
북미/EU	31.25	13.93	49.53	27.64	46.35	85.92
아시아	25.68	14.8	9.05	46.05	26.13	3.62
중남미	13.05	37.5	27	10.38	13.01	5.63
기타	0	3.84	0	1.56	0	0

자료원: WTA

주) 음영표시는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 이러한 교역관계 다각화 필요성은 미국, EU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급격한 수출 감소를 경험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강화가 이들 4개 회원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 또한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도래한 중남미 태평양 시대 주도권 선점과 아태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입지 확보 필요성도 태평양 동맹 결성의 이유 중 하나임.

□ 중남미 경제패권을 노리는 경제블록

- 중남미 지역경제는 전통적으로 브라질과 멕시코가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멕시코의 NAFTA 가입 및 북미권과의 통합으로 브라질을 포함하는 메르코수르의 역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바 있음

<2011/2012년 메르코수르와 태평양동맹 주요 경제 지표 비교>

지표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2011	2012	2011	2012
1인당 평균 구매력(달러)	12,706.0	13,130.1	13,075.8	13,810.5
1인당 평균 GDP(달러)	10,415.1	11,025.7	9,449.5	10,010.6
총 GDP(십억 달러)	3,324.8	3,328.7	1,915.4	2,010.3
평균 물가상승률(%)	11.8	9.7	3.4	3.5
총인구(백만명)	276.2	278.9	207.0	209.3
GDP대비 공공투자비중(%)	20.5	20.3	24.5	25.0
평균 실업률(%)	6.6	6.5	7.7	7.1

자료원: IMF (주: 굵은 글씨체는 비교 우위를 나타냄)

- 그러나 리더십 부재, 지나친 폐쇄주의적 성향과 불합리한 정책 및 제도는 메르코수르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정치적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세력이 약화되는 추세
- 또한 좌파정권 확산과 베네수엘라의 메르코수르 가입 이후 경제 보다는 정치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과 설립 목적에 반하는 보호주의 확대는 메르코수르의 경쟁력과 신뢰도 하락의 주원인
- 반면 태평양동맹의 경우, 철저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결성된 경제 블록이자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동맹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음.

- 정치적 성향 역시 중도 우파 정권이 우세한 국가 그룹으로 메르코수르와는 모든 면에서 반대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간의 중남미 경제패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규모와 보유산업 면에서는 태평양동맹이 뒤처지나 주요 정책 및 회원국 간의 공조, 대외 이미지 및 신뢰도 면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됨.

<2012 비즈니스 환경 조사 분야별 순위 현황>

경제블록	국가	최종순위	법인설립	대출	투자가보호	세금제도	무역
태평양동맹	칠레	1	4	7	5	1	5
	페루	3	9	4	2	9	8
	콜롬비아	4	10	10	1	13	17
	멕시코	5	5	6	12	15	9
메르코수르	우루과이	14	6	10	18	23	22
	파라과이	19	19	13	13	24	32
	아르헨티나	26	26	10	21	26	30
	브라질	28	20	20	14	28	27
	베네수엘라	33	25	30	32	33	33

자료원: IFC(국제금융공사)

- 실제로 IFC에서 실시한 2012 비즈니스 환경 조사에서 태평양동맹 4개국이 중남미 1~4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메르코수르 5개 회원국은 중하위권에 랭크

<3대 신용평가사의 메르코수르/태평양동맹 신용평가 현황>

그룹	국가	S&P	Moody's	Fitch
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	B-	Caa1	CCC
	브라질	BBB	Baa2	BBB
	파라과이	BB-	B1	N/A
	우루과이	BBB-	Baa3	BB+
	베네수엘라	B	B2	B+
태평양동맹	칠레	AA-	Aa3	A+
	콜롬비아	BBB	Baa3	BBB-
	멕시코	BBB	Baa1	BBB+
	페루	BBB	Baa2	B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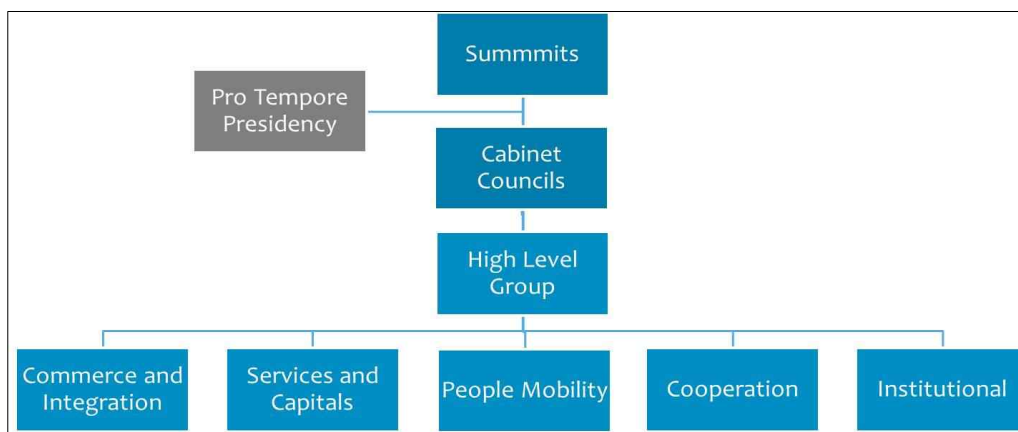
자료원: S&P, Moody's, Fitch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에서도 태평양동맹 4개국의 평가가 메르코수르에 비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국가 중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로 3대 평가사로부터 모두 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반대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모두 부정적 평가

□ EU형 공동체를 추구하는 경제블록

- 태평양동맹 4개국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 자본, 서비스, 상품분야의 자유로운 교류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한 상호 간의 정치/경제/사회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통합 시장 운영을 통해 경제성장, 국가발전, 경쟁력 강화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성장을 위한 공동 노력과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태평양동맹은 EU 집행위원회와 유사한 본부를 설립하고 무역통상, 서비스/자본, 인적자원, 대외협력, 제도분야 소위원회를 설치해 국제이슈 및 회원국 간의 이슈에 대응하고 있음.

<태평양동맹 집행위원회 조직도>



자료원: Alianza del Pacifico

- 그 밖에 통합주식시장(MILA) 운영, 가나와 해외공관 통합 등을 추진 중이며 칠레와 콜롬비아는 이미 모로코에서 대사관 통합을 완료함.
- 무역 분야에서는 4개국 간 전체 수출 품목의 92%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주요 국제전시회 4개국 공동 참여, 해외 공동 IR 행사 개최 등이 지속 추진 중임.
- 결과적으로 또한 상호 간의 포괄적 개방과 최혜국 대우를 통해 태평양동맹의 전반적 투자매력도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회원국 경제 고도화를 기대하고 있음.

II. 태평양동맹 플랫폼 활용 전략

1. 중남미 진출 관문으로서의 태평양동맹

□ 인구 2억 시장 원스톱 진출 기회

- 태평양동맹의 전체 인구는 약 2억, 1인당 구매력은 13,000 달러에 달하며 2017년까지 18,000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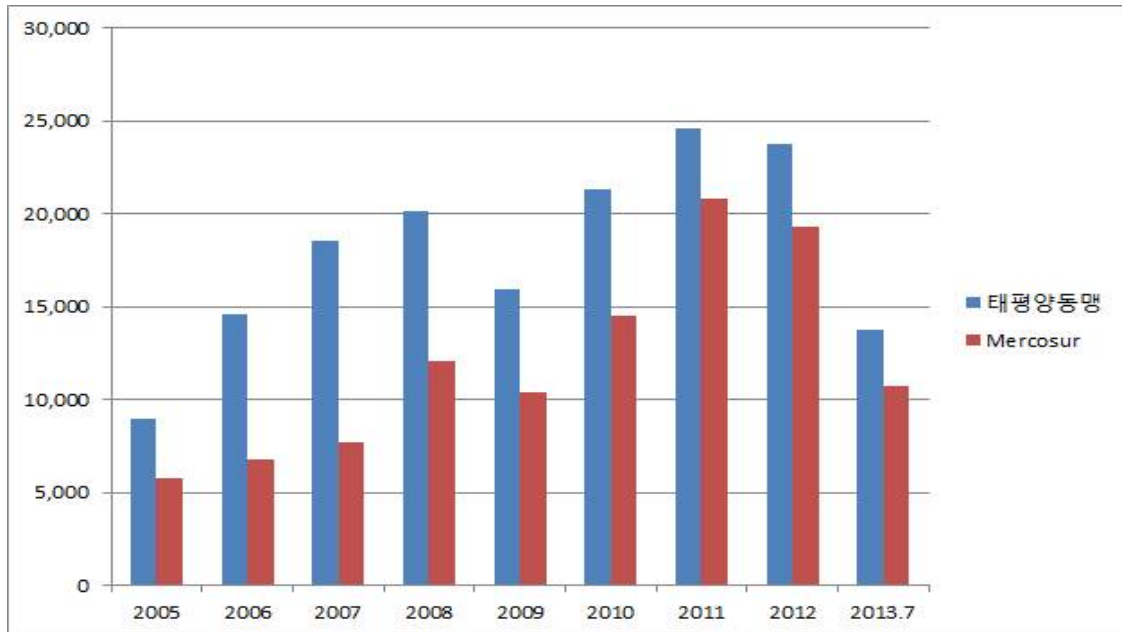
<태평양동맹 회원국별 구매력 및 인구 현황과 전망>

국가	지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칠레	구매력(달러)	16,193	17,361	18,354	19,256	20,252	21,347
	인구(백만)	17.094	17.248	17.403	17.557	17.711	17.865
콜롬비아	구매력(달러)	9,585	10,247	10,729	11,219	11,746	12,331
	인구(백만)	45.512	46.052	46.598	47.151	47.711	48.277
멕시코	구매력(달러)	13,977	14,653	15,300	15,881	16,506	17,160
	인구(백만)	112.317	113.735	114.872	116.021	117.181	118.353
페루	구매력(달러)	9,358	10,062	10,679	11,275	11,943	12,672
	인구(백만)	29.552	30.009	30.474	30.946	31.424	31.911
Total	평균구매력	12,278	13,081	13,766	14,408	15,112	15,878
	총인구	204.475	207.044	209.347	211.675	214.027	216.406

자료원: IMF

- 우리나라가 4개 회원국 중 3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산업 진출의 윤활제가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태평양동맹을 통해 이들 4개국에 진출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 회원국이 체결한 기타 FTA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진출 및 협력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함.
- 현재 우리나라와 대 태평양동맹 교역은 연간 2012년 기준 238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메르코수르와의 교역대비 약 20% 많은 금액
- 우리나라의 중남미 국가별 교역대상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브라질이 1위이나 그룹별 교역 총액으로는 태평양동맹이 최대 규모를 보임.

<우리나라의 대 태평양동맹, 메르코수르 연도별 교역현황>



자료원: KITA

- 아울러 회원국 간의 교역, 투자, 인적 교류 증가는 산업 및 소비 시장 트렌드 정보 공유 확대로 이어지면서 1개국과의 성공적 교류가 회원국 전체 시장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회원국의 경제, 산업, 소비 수준에 큰 격차가 없다는 점은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며 이로 인한 원스톱 진출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원건설플랜트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

- 태평양동맹 4개 회원국은 중남미에서 가장 역동적인 개발 프로젝트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국가별로 광물과 원유, 천연가스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미개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지속적인 자원개발과 인프라 확충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보유 자원 현황>

보유자원	보유량	보유국가
석유(십억배럴)	15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천연가스(십억 m³)	1,014	멕시코, 콜롬비아
석탄(백만톤)	5,986	콜롬비아, 멕시코
구리(백만톤)	7,293	칠레, 페루, 멕시코
철광석(백만톤)	15,008	멕시코
아연(백만톤)	38	페루, 멕시코
니켈(천톤)	1,600	콜롬비아

자료원: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 특히 콜롬비아와 페루의 경우 국가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로, 공항, 항만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개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남미 국가임.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47개 기업이 중남미 18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총 수주규모는 220억 달러 수준
- 이 중 절반 수준인 약 100억 달러가 태평양동맹 회원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이며 총 18개 프로젝트에 14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

<2012년 우리 기업의 태평양동맹 4개국 건설플랜트 수주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국가	업체수(시공중)	공사건수(시공중)	공사건수(누계)	공사금액(누계)
칠레	4	8	11	4,685
콜롬비아	2	2	5	527
멕시코	6	7	58	4,334
페루	2	1	7	574
Total	14	18	81	10,120

자료원: 해외건설협회(ICAK)

- 또한 최근 중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진출 시장의 수요 감소가 대체시장 발굴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개척 시장 중 가장 안정적인 진출 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중남미가 부상

- 뿐만 아니라 태평양동맹 회원국 중 가장 건설플랜트 수요가 많은 콜롬비아와 페루가 친한(親韓) 국가라는 점과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
- 그 밖에 칠레, 멕시코 등에서의 프로젝트 참여 경험과 해당 시장 내 우리 기업 인지도 및 신뢰도 역시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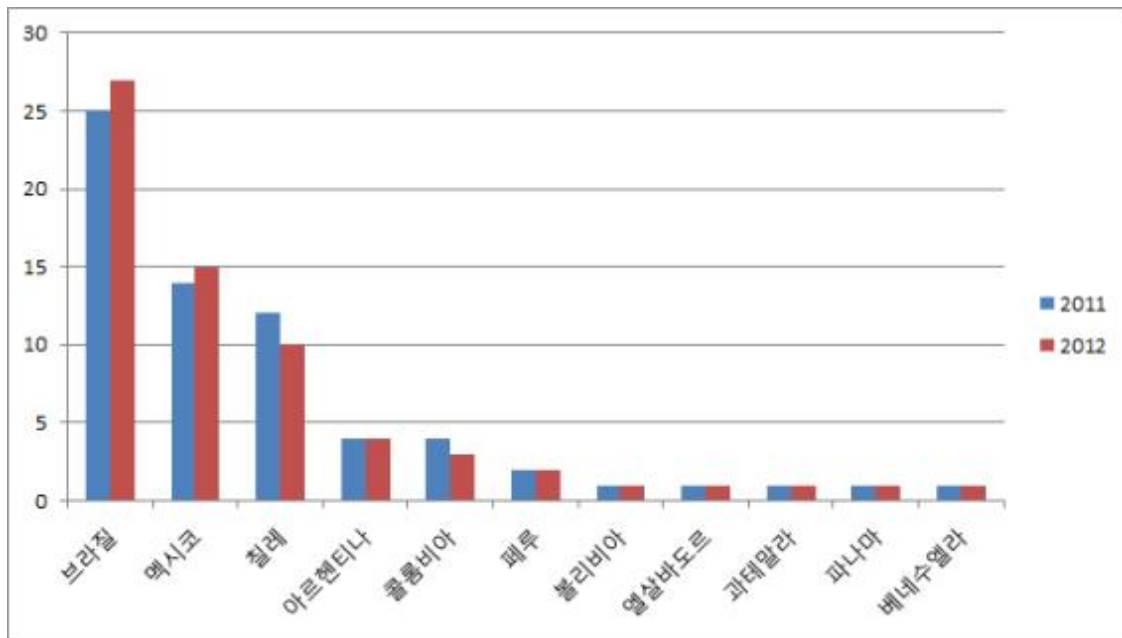
□ 평판효과 (Reputation effect) 수혜

- 여타 다른 경제권도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중남미는 주변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함.
- 또한 역내 국가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적절한 개발모델을 발굴하고 모방 대상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에 좀 더 무게를 실어 주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따라 중남미 한 국가에서 성공 사례를 창출할 경우, 이러한 사례가 해당국은 물론 중남미 전역에 전파되는 이른 바 평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한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 중남미 초기 진출 시 현지 인지도 및 발주처의 신뢰도 부족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최초 프로젝트 완공 이후 타 발주처 및 주변국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 바 있음.
- 비단 건설플랜트 분야뿐만 아니라 중간재 및 소비재의 경우도 진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경우 주변국으로의 평판 전달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 그 밖에 중남미 역내 다국적기업(Multilatinas)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 기업과의 긍정적 협력관계 구축은 중남미 진출시장 확대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

- 2012년 기준 65대 중남미 다국적기업 중 절반 수준인 31개 기업이 태평양동맹국 소속 기업이며 일반적으로 이들 기업들은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국 시장에 상호 진출해 확고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중남미 국별 MULTILATINA 보유 현황>

(단위: 개사)



자료원: America Economia

<중남미 다국적기업(Multilatina) 중 태평양동맹 회원국 소속 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	국가	분야	홈페이지
1	LAN	칠레	항공사	lan.com
2	CEMEX	멕시코	시멘트	cemex.com
3	TELMEX	멕시코	통신	telmexinternacional.com
4	GRUPO ALFA	멕시코	석유화학	alfa.com.mx
5	AJE GROUP	페루	식품	ajegroup.com
6	GRUPO BIMBO	멕시코	식품	grupobimbo.com
7	SIGDO KOPPERS	칠레	건설엔지니어링	sigdokoppers.cl
8	AMÉRICA MÓVIL	멕시코	통신	americamovil.com
9	ISA	콜롬비아	전력	isa.com.co
10	GRUPO CASA SABA	멕시코	소매	casasaba.com
11	AVIANCA-TACA	콜롬비아	항공사	taca.com
12	GRUPO NUTRESA	콜롬비아	식품	gruponutresa.com

13	CSAV	칠레	운송	csav.cl
14	INTEROCEÁNICA	칠레	운송	ccni.cl
15	MEXICHEM	멕시코	석유화학	mexichem.com.mx
16	CENCOSUD	칠레	소매	cencosud.cl
17	SONDA	칠레	IT	sonda.cl
18	ARAUCO	칠레	펄프/임업	arauco.cl
19	CONCHA Y TORO	칠레	식품	conchaytoro.com
20	CMPC	칠레	임업	cmpc.cl
21	GRUPO ARGOS	콜롬비아	시멘트	argos.co
22	GRUPO MODELO	멕시코	식품	gmodelo.com.mx
23	FALABELLA	칠레	소매	falabella.cl
24	P.I. MABE	멕시코	펄프	gpomabe.com.mx
25	GRUPO TELEVISA	멕시코	방송	televisa.com.mx
26	GRUPO ELEKTRA	멕시코	소매	elektra.com.mx
27	FEMSA	멕시코	식품	femsa.com
28	VITRO	멕시코	유리	vitro.com.mx
29	GRUPO GLORIA	페루	식품	grupogloria.com
30	RIPLEY	칠레	소매	ripley.cl
31	MADECO	칠레	임업	madeco.cl

자료원: America Economía

2. 중남미 진출 플랫폼으로서의 태평양동맹

□ 국별 산업 특성에 따른 진출 거점 선정 검토

- 태평양동맹 4개국의 국별 산업은 공통적으로 자원 산업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

<멕시코의 대외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가	연도별 수출액			2012 수출비중
		2010	2011	2012	
총 수출액		298,230	349,568	370,890	100
1	미국	238,522	274,712	287,814	77.6
2	중남미 46개국	21,282	26,674	28,700	7.74
3	ASEAN 10+6	9,927	13,774	16,229	4.38
4	캐나다	10,616	10,674	10,939	2.95
5	스페인	3,678	4,819	7,157	1.93

자료원: WTA

- 멕시코의 경우, 중남미 지역 최대 제조업 메카 중 하나로 주로 미국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최근 중남미 시장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임.
- 멕시코의 대 중남미 수출 비중은 약 4%대로 미미하였으나 점진적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12년 기준 7.6%로 확대
-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11%), 전자제품(5%), 기계류(4%) 등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페루 등임.

<콜롬비아의 국별(지역그룹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가	연도별 수출액			2012 수출비중
		2010	2011	2012	
	총 수출액	39,552	26,509	60,667	100
1	미국	16,746	21,650	21,980	36.2
2	중남미 46개국	10,955	18,315	19,285	31.8
3	ASEAN 10+6	3,823	3,942	6,296	10.4
4	중국	1,967	1,979	3,343	5.5
5	스페인	565	1,709	2,940	4.8

자료원: WTA

-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은 광물/에너지 자원으로 농업, 화장품, 의류/섬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이 산재해 있으나 규모 및 기술력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
- 콜롬비아의 수출은 미국과 중남미 역내 국가에 대한 비중이 각각 36.2%와 31.8%로 가장 크며 대 아시아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기준 ASEAN+6 그룹에 대한 수출은 총 6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0.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2.4%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 품목은 단연 원유의 비중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광물, 커피, 철광석, 과일 등 1차 산업 제품이 수출 상위 품목

<페루의 국별(지역그룹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가	연도별 수출액			2012 수출비중
		2010	2011	2012	
	총 수출액	34,909	45,860	45,498	100
1	ASEAN 10+6	8,752	11,743	12,921	28.4
2	중남미 46개국	5,965	8,290	8,908	19.6
3	중국	5,423	6,961	7,779	17.1
4	미국	5,672	5,852	6,075	13.3
5	스위스	3,825	5,917	5,068	11.1

자료원: WTA

- 페루 역시 콜롬비아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원유, 섬유제품, 과일, 수산물 등임.
- 그러나 주요 수출 대상은 ASEAN+6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중남미 역내교역(19.6%), EU27(17%) 순임.

<칠레의 국별(지역그룹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가	연도별 수출액			2012 수출비중
		2010	2011	2012	
	총 수출액	67,425	80,765	76,791	100
1	ASEAN 10+6	31,082	36,395	36,021	46.9
2	중국	16,457	18,351	17,822	23.2
3	중남미 46개국	11,613	13,250	12,463	16.2
4	미국	6,533	8,788	8,985	11.7
5	일본	7,111	9,186	8,442	11.0

자료원: WTA

- 마지막으로 칠레의 경우, 농수산업과 구리, 목재펄프 등 광업/임업 등 1차 산업 이외에 서비스업 위주로 주요 산업이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칠레 유통산업은 중남미에서 가장 선진화된 분야이며 다수의 칠레계 유통 그룹이 이미 태평양동맹 국가는 물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진출해있으며 금융서비스업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국별 산업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제조업의 경우 이미 일정 수준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멕시코와 콜롬비아가 진출 플랫폼으로 적합
- 또한 광업 및 농수산업은 미개발 지역이 많은 페루와 콜롬비아,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칠레가 적절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별 교집합 산업 활용 전략 필요

- 국가별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태평양동맹 4개국은 특정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을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음.
- 특히 4개 회원국 모두 광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제조업 분야, 페루와 칠레는 농수산업이 공통 산업임.
- 이에 따라 태평양동맹 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물론 중남미 전체 시장을 포괄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국가 선정 및 진출 기지화 하는 전략을 통해 태평양동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제조업 기반을 공통적으로 보유한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경우, 북미와 남미를 잇는 요충지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이점이 더해져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매력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

<대 멕시코/콜롬비아 제조업 진출 및 활용전략>

산업	1순위	2순위	전략
의료기기	멕시코	콜롬비아	·의료 인프라 현대화/디지털화 본격화 ·첨단장비를 비롯한 고품질 의료기기 수요 증가 ·디지털 병원 프로젝트 발주 확대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정책 추진
섬유	콜롬비아	페루	·콜롬비아 섬유산업 육성 정책 활용 ·중미카리브 섬유산업과 연계, 섬유 클러스터화 ·미주 및 EU 섬유수출 허브로 활용
식품	페루	멕시코	·농산품 다양성을 활용한 식품 가공 기지 구축 ·열대과일, 커피, 유제품 위주 가공식품 생산 기지로 활용 ·미주지역 및 아시아, EU 시장 판로 개척 거점

- 칠레와 페루가 보유한 농수산업은 풍부한 자원에 비해 가공능력 및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부족한 상황
-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수출 가능 산업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수출 품목 다양화도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수산업의 경우 수출이 연어, 오징어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이에 따라 양국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진출 전략으로 기업형 농업과 양식업 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양식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보유한 다양한 어패류 양식 기술과 양국의 수산자원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뿐만 아니라 양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 EU, 일본 등 타 시장으로 우회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산업협력 파트너로서의 태평양동맹

□ 생물 다양성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협력

- 중남미 지역은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Super Power를 보유한 지역으로 의료 바이오, 코스메틱을 비롯해 식량자원 개발 등에도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
- 태평양동맹 회원국 중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3개국은 중남미 대표 중 다양성 보유 국가로 미래 바이오산업 개발의 충분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중남미 국가별 종 다양성 순위>

(단위: 종)

No.	국가	포유류	조류	식물	Total
1	멕시코	450	1,026	25,000	26,477
2	브라질	394	1,635	55,000	57,031
3	콜롬비아	359	1,695	50,000	52,057
4	페루	344	1,678	17,121	19,147
5	베네수엘라	305	1,296	20,000	21,606

자료원: UNESCAP

- 회원국들 역시 자국 보유 생물/식물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선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술교류, 공동 투자 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함.
- 다국적 기업들 역시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종 다양성을 활용한 의약품 및 화장품 개발 분야 등에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종 다양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친환경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중남미 지역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보호, 오염방지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또한 각국 정부는 신 환경정책 수립 및 오염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임.
-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화력/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력 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향후 풍부한 천연자원 활용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산업 개발 수요가 기대되며 선진기술 도입 및 국가 간 경험교류 사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 밖에 일반 소비자들 역시 저탄소배출, 환경보호 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일반 소비재 시장에서도 협력사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 현대화 사업 경험 교류

- 중남미 지역은 아프리카를 제외할 경우 마지막 대규모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 실제로 중동 건설플랜트 수요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각광 받기 시작하면서 세계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진출이 증가 추세
- 태평양동맹 4개 회원국은 중남미 프로젝트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프라, 산업시설 및 현대화, 일반 건설 분야에서 급성장 중
- 이러한 건설 붐은 무엇보다도 과거 정치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이유로 정체된 국가 개발 프로젝트가 2000년 이후 본격화되었기 때문임.
- 실제로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목표로 국가 현대화와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꼽고 있음.
- 또한 국가 현대화는 태평양동맹이 내세우는 세계 경제와의 통합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개발 경험은 중남미 국가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태평양동맹은 물론 타 중남미 국가에서도 벤치마킹 수요가 높은 편임.

Ⅲ. 진출 유망분야

1. 건설 플랜트

□ 교통 인프라 구축 분야

-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국가별로 대도시 형성과 인구 밀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추세
- 콜롬비아의 경우 소득수준 향상과 도시 인구 집중이 함께 시작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중교통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함.
- 이에 따라 시내 도로망 확충을 비롯한 국가 도로망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하철 건설을 비롯한 대중교통도 추진 중임.
- 다른 회원국들 역시 기존 교통 인프라 환경 개선, 고속철도와 같은 첨단 교통수단 도입 등을 검토 중으로 향후 프로젝트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전력, 상하수도 등 플랜트 분야

- 산업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력생산능력 확충 및 오염물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 또한 대량의 전력소모가 불가피한 광업 및 석유화학산업 성장은 화력발전 건설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로 환경 보호를 위한 풍력, 태양광, 조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 제조업

□ 의류/섬유산업

- 콜롬비아, 페루는 중남미 주요 의류/섬유 생산 국가로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다국적기업의 OEM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에 그침
- 그러나 최근 독자적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 매년 패션위크 및 의류/섬유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중남미 의류/섬유산업 중심으로 부상 중
- 페루 섬유산업은 자국의 전통 산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신소재 개발 및 품질로 인지도가 높음.
- 또한 섬유 생산의 전문성과 숙련된 인적 자원은 페루 섬유산업의 강점 중 하나이며 실제로 알파카, 비쿠나와 같은 동물의 털을 활용한 제품에 특화되어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의 섬유 생산 및 가공 기술과 현지의 제조업 기반 활용, 신소재 공동 개발 등이 가능하며 콜롬비아는 일반 의류, 페루의 경우 고급 의류 생산 거점으로 적합

□ 의료기기

- 사회복지시스템 개혁과 빈곤층에 대한 기본 혜택 제공 등이 이슈가 되면서 의료시설 현대화와 첨단기기 구매 수요 증가
- 국가 지속성장의 바탕은 빈곤 해소와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스템 원칙은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그 결과 공공 의료시설의 디지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설비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장 진출 및 현지 조립공장 건설을 통한 역내 의료기기 시장 직접 진출 등이 유망함.
- 또한 소비자들의 눈높이 향상과 함께 민간 의료시설 역시 서비스 개선,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중남미 의료기기 진출에 긍정적인 요소임.

3. 정보통신(IT)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교통시스템) 프로젝트

- 최근 중남미 도시개발의 핵심은 도로 및 대중교통 확충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시스템 도입
- 이미 중남미 역내 대도시에서 ITS를 도입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 또한 도입 시스템의 오작동 및 오류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시스템 확대 및 개선 수요 증가세
-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독자 ITS 도입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중남미 ITS 시장 확대를 가속화 하고 있음.
- 현재 콜롬비아는 보고타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ITS가 일부 도입되어 있으며 최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계획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
- 페루, 멕시코 등도 ITS 신규 도입 및 확대를 추진 중이며 도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ITS가 필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 대중교통의 ITS 뿐만 아니라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을 비롯한 지능형 도로 관리 시스템에도 도입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중남미 도로 인프라 선진국인 칠레의 경우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이미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이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전자통관 시스템 도입 수요

- 대외교역 증가에 따른 국제 물동량 증가는 중남미 각국의 항구 시스템 현대화와 원스톱 통관 시스템 도입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증가는 중남미 국가 간에 태평양 연안 항구 현대화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시아-중남미 교역에서 물류 허브 쟁탈전이 본격화되는 추세
- 그 결과 각국 정부는 각 항구의 물동량 처리능력 강화는 물론 시스템 측면의 개선을 통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관 자동화 시스템 및 엑스레이 검사 장비 도입 등의 프로젝트가 구체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됨.
- 태평양동맹 회원국 역시 공통적으로 통관 및 행정 간소화가 물류 경쟁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와의 기술 교류, 시스템 도입 등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추세임.

4. 방위산업

□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

-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군용 무기 수요가 높은 중남미 국가 중 하나로 내부적으로는 반군과의 대치, 대외적으로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가 무기수요 증가를 견인

- 최근 반군과의 평화협상 및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진행 중에는 있으나 군 시스템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또한 국내 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 관련 장비, 무기 현대화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군수물자 수입 증가가 기대됨.
- 페루 역시 군, 경찰 관련 장비 및 무기 구입을 확대하는 추세로 칠레와의 해상 영유권 분쟁과 내부 치안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방산물자 교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우리기업들의 콜롬비아, 페루 방산산업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어 앞으로 중남미 다른 국가들로의 확대 진출도 모색 가능해짐.

IV. 시사점

□ 태평양동맹, 중남미 新 파트너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관계는 상품교역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양자 간의 교류 분야 다양화는 미흡했음.
- 선진국 및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의 중남미 현지진출 및 현지화는 매우 뒤처지는 상황이며 최근 대 중남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도 격차가 큰 상황
- 이와 같이 미진한 중남미와의 교류 다양화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 협력이 미국, EU,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중남미 지역의 경제적 가치에 인식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임.
- 중남미 국가 역시 반복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과 부정부패, 치안문제 등 부정적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저해요소로 작용함.
- 그러나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달성한 정치/경제적 성과는 대외 이미지 개선은 물론 차세대 신흥시장으로써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에 충분함.
- 특히 태평양동맹은 중남미 개방경제의 상징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신뢰를 주고 있으며 세계무대에서의 자신감과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파트너링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중남미 시대의 조력자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산업 분야 동반성장 전략 필요

- 과거 중남미 국가들이 선진국의 무조건적인 원조와 지원을 원했다고 한다면 최근 중남미 국가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지향.
- 또한 지원과 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 기술력 확보 등 실질적 이익에 집중하고 이를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각국의 성공사례 연구 및 변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중남미와 차별화됨.
-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도 중남미를 단순한 수출시장으로 간주하는데서 벗어나 다분야 협력 및 동반성장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중남미 국가가 보유한 광물, 에너지, 생물자원은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핵심 키워드라는 점에서 해당 분야 협력과 양자 간의 윈윈전략을 도출하는데 집중해 중남미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

□ 태평양동맹, 새로운 한-중남미 관계 구축의 열쇠

- 우리나라의 최초 중남미 FTA 대상이었던 멕시코와의 협상은 2000년부터 추진되기는 했으나 현재 협상 중단상태임.
- 메르코수르와의 FTA 역시 2007년 공동연구 발표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었으며 협상 착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임.
- 멕시코,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은 다수의 상충되는 산업이 존재했다는 점과 보호무역, 자국산업보호 정책이 걸림돌이었음.

- 또한 한국과의 FTA 체결이 가져 올 산업붕괴, 경쟁력 상실 등 산업계의 위기의식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져 긍정적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음.
- 이와 반대로 태평양동맹은 자유경제, 시장개방, 외국인 투자를 동력으로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의 그룹이라는 점과 아시아와의 협력이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인식하는 점에서 차별화 됨.
- 또한 태평양동맹의 경제규모가 메르코수르와 경쟁이 가능한 규모이자 성장 잠재력이 막강한 국가 그룹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남미 진출 파트너로 적합.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 출범을 새로운 한-중남미 관계 구축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며 선진국 및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 마련과 효과적 시행이 필요함.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 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13-014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013.2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2013.2
13-016	주요국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2013.2
13-017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2013.2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3.3
13-019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3.3
13-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기타 무선통신기기>	2013.3
13-02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2013.3
13-02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2013.3
13-024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멕시코	2013.3
13-025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2013.3
13-02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유리 저장 용기 -	2013.3
13-027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2013.3

13-028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9	2013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4
13-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X선 및 방사선기기부품 >	2013.4
13-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초화장품 -	2013.4
13-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합성수지·합성고무 -	2013.4
13-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기타기계류 -	2013.4
13-03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스키 헬멧>	2013.4
13-035	Post Chavez, 변화와 전망	2013.4
13-036	2013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2013.4
13-037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3.4
13-038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2013.4
13-039	Putin 취임 1주년 경제 진단 및 전망	2013.5
13-040	유럽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서유럽편 -	2013.5
13-041	유럽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동유럽·북유럽편 -	2013.5
13-042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1년과 향후 전망	2013.5
13-043	핀란드 창업·재취업 프로그램 현황 및 시사점	2013.5
13-044	日 엔고극복 사례가 주는 엔저원고시대의 시사점	2013.5
13-045	CIS 대형 유통망 현황 및 진출 방안	2013.6
13-046	기업에 공유가치를 입혀라~창조경제를 만든 해외기업의 CSV 사례~	2013.6
13-047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사업환경 변화와 시사점	2013.6
13-048	호주 자원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2013.6
13-049	2013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6
13-050	한-EU FTA 2주년 성공사례 및 주요 바이어 반응조사	2013.6
13-051	2013년 하반기 지역별 수출입 전망과 시장여건	2013.7
13-052	북미세일가스 개발 동향 및 한국기업 진출전략	2013.7
13-053	'Rich Africa, Blue Africa' - 경제통상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방안	2013.8
13-054	북미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방안 - 미국편 -	2013.9
13-055	북미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방안 - 캐나다편 -	2013.9
13-056	독일 메르켈 총리 재집권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13.9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대만시장에서 한류 활용하기	2013.1
13-0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2
13-004	中國寶庫-양회시리즈	2013.5
13-005	중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400인 (Who's who in China's Leadership)	2013.6
13-006	중국 온라인쇼핑 시장현황과 히트상품 분석	2013.8
13-007	중국 중서부 투자 우대산업 목록	2013.9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13-00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1
13-003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3.1
13-004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2013.2
13-005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2013.3
13-006	국가HR 개선 방안 연구	2013.3
13-007	2009~2012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성공사례집	2013.3
13-008	2013 외국인투자 가이드	2013.4
13-009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업체 디렉토리	2013.5
13-010	국별 해외전시회 가이드	2013.5
13-011	2013 이라크-요르단 경제통상사절단 종합 결과 보고서	2013.5
13-012	201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3.5
13-013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2012	2013.5
13-014	엔저가 일본의 對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	2013.5
13-015	세계 주요국 전력시장 현황	2013.5
13-016	미얀마 투자실무가이드	2013.5
13-017	2013 외국인투자상담 Q&A	2013.5
13-018	201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3.5
13-019	Global Green Hub Korea 2013 결과보고서	2013.5
13-020	2013 글로벌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3.6
13-021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 마케팅 가이드	2013.6

13-022	이것이 글로벌 명품전시회다	2013.6
13-023	2013 Doing Business in Korea	2013.6
13-024	러시아 프로젝트 진출 가이드	2013.6
13-025	유럽 비즈니스 워크 개막 세미나 (공공조달 진출 전략)	2013.6
13-026	브라질 태양광 프로젝트 예비조사 보고서	2013.6
13-02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요약 번역본 (국제가치사슬: 성장을 위한 투자와 무역)	2013.7
13-029	2013 전략적제휴 안내서	2013.8
13-031	글로벌 중소기업, DNA부터 다르다	2013.8
13-03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력인프라 현황 및 진출방안	2013.8
13-033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13.8
13-034	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	2013.8
13-035	투자실무가이드 - 네덜란드 -	2013.8
13-036	2012년 글로벌 FDI 동향	2013.8
13-037	2013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3.9
13-038	신홍국 제조업 지도 : 어디서? 무엇을?	2013.9
13-039	신홍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	2013.9
13-040	글로벌 창업 종합가이드	2013.3
13-041	신홍국 진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Volume Zone & Reverse Innovation	2013.9
13-042	2012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3.10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
13-002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
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3.1
13-004	Iraq-Korea Business Forum	2013.3
13-005	Reshoring to KOREA - 국내 U턴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환경 설명회 -	2013.4
13-006	2013년 제1회 차이나 커뮤니티 세미나	2013.3
13-007	Global Project Plaza 2013	2013.5
13-008	2013 철도 기자재 조달 플라자 Railway Procurement Plaza 2013	2013.5

13-010	2013년 유럽 주요국 대형유통망 현황 조사	2013.6
13-011	선진 ESCO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6
13-012	Europe Business Week 2013 - 유럽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 -	2013.6
13-013	Europe Business Week 2013 - 유럽 공공조달 진출전략 설명회 -	2013.6
13-014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	2013.6
13-015	2013 국제금융기구(MDB) 조달 설명회	2013.6
13-016	베트남연안국 비즈니스포럼	2013.7
13-017	이란 대체시장 설명회	2013.7
13-018	'중국新도시화 정책과 활용전략' 설명회 Korea-China Biz Plaza 2013	2013.9
13-019	신흥시장 주요 트렌드 및 진출방안	2013.9
13-020	자동차, 프로젝트 분야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13-021	ICT, 유통업, 의료서비스업 분야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13-022	중남미 새로운 기회: Post Chavez, 그리고 태평양동맹	2013.9
13-023	CIS 대형 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13-024	아프리카 진출 파이낸싱 전략 세미나	2013.9
13-025	아시아 온라인 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작성자

◆ 보고타무역관 성기주 과장
◆ 신흥시장팀 안성희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3-000

태평양동맹 현황 및 활용전략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3년 9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